

## 농촌지역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진안홍삼축제를 중심으로 -

유상춘\*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축제참여가 지역민에게 미치는<br>사회문화적 영향 |
| 2. 진안의 사회적 배경과 축제            | 1) 지역민의 참여의지와<br>놀이장소로서의 역할    |
| 1) 진안의 사회적 변화                | 2) 진안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             |
| 2) 진안의 축제정책과 대표축제            | 5. 맺음말                         |
| 3. 축제를 둘러싼 주체 간의 정치경제적<br>영향 | 참고문헌                           |
| 1) 축제의 경제효과와 축제 참여에<br>대한 경험 | <Abstract>                     |
| 2) 축제를 매개로 한 정치적 경합          |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진안홍삼축제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다양한 주체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경제적 영향, 정치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적 영향은 축제기간에 진행되는 통계자료와 축제에 참가하는 상인의 인터뷰로 파악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경제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방문객 숫자가 줄었지만 오히려 경제효과는 상승하였다. 그러나 축제에 참여한 인삼농가와 상인은 수입이 줄었다고 체감한다. 또한 축제장소와 떨어져 있는 주요 상가지역은 축제에 참여할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E-mail: yoosc719@hanmail.net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각 주체에 따라 축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축제의 성공을 경제적 효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축제의 경제적 영향은 진안군이 홍삼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효과를 내려고 하지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농가와 상인들은 상품화까지 연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난다.

정치적 영향은 축제를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행정에서 선정하고 행정이 주도하여 운영하면서 나타난다. 또한 군수가 정치적 전략으로 축제를 이용하면서 지역민과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 농촌지역은 군수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축제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그 이유는 축제 비용은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행정에 의존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수의 정치적 목적이 축제를 통해 발현된다. 사회문화적 영향은 진안홍삼축제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참여과정과 이유, 진안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 지역민의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다. 농촌지역 축제는 단기간에 새로운 경험을 지역민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지역민이 축제를 찾는 이유는 대접하기, 친분 쌓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같이 축제는 복합적인 기능이 집약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연구했다는 점과 농촌지역에서 단기간에 대표축제로 만든 주체들의 관계 속에서 내부적 연결고리를 촘촘하게 연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진안홍삼축제, 진안군, 농촌지역 축제, 지역민 참여, 지역정체성, 사회적 유대감

## 1. 머리말

우리나라 전통축제는 제의의 성격이 강한 마을공동체 축제가 주를 이루었다. 1970년대 이후, 관이 주도하는 유희적 축제나 관광적 축제가 많아졌지만 전통적으로 마을 중심의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는 명절이나 절기마다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유대는 긴밀하게 형성되면서 세대 간에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sup>1)</sup>

6, 70년대에 들어서며 전국에서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1) 이경화, 2016,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축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나주 이슬촌 크리스마스축제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 1쪽

잔존하던 동제 등의 제의적 축제들도 미신으로 간주되며 사라졌다. 대신 그동안 학교나 면단위에서의 운동회나 면민의 날 행사가 늘어났으며, 시·군민의 날이 증가하며 제의적 축제는 약화되고 유희적 축제가 크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를 이동시켰고, 이로 인해 농촌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전통축제는 점차 사라져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sup>2)</sup> 이 시기에 개최된 지역 중심의 시·군민의 날은 진안군을 보더라도 1965년에 제정되어 지역민을 화합하는 장의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80년대도 축제는 전통축제가 일부 유지되면서 문화예술의 성격이 아닌 공동체 기반의 축제가 진행되었다. 축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부터다. 지역마다 경쟁력을 갖고 지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가 양산되기 시작했고, 축제유형도 다양화되었다.<sup>3)</sup>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축제 수가 241개에 불과했지만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처음 개최된 축제 수는 508로 총 749개에 달한다. 그만큼 축제를 매개로 지역의 경쟁력을 삼으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축제가 난립하기 시작했고, 관광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관광축제가 30% 가까이 된다. 2006년 전국의 축제 수는 1,176개에 달하고 전북도 76개나 개최되었다.<sup>4)</sup> 이후로 일부 축제가 소멸되어 2018년에 전국의 축제 수는 886개, 전북은 51개 되었다.<sup>5)</sup>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축제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축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과제처럼 개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지역 축제는 도시와 농촌의 역할이 산업화 이후에 분명해지면서 축제의 역할도 재정립되었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관광이벤트의 성격으로 변화되어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활동의 수단으로 변화되고 있다.<sup>6)</sup> 따라서 농촌지역의 축제를 분석하는 시각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주

2) 심우석 2011, 「농촌지역 축제 특화와 새로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 13-14쪽  
 3) 박민규 2013, 「경상남도 거창군의 지역문화축제에 관한 연구 : 대중음악 콘텐츠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 11-13쪽  
 4) 류정아 2006,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5쪽  
 5) 유지연 2018, 「국내 축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 : 해외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지식DB 문화돋보기』 62, 4-5쪽  
 6) 심우석 2011, 「농촌지역 축제 특화와 새로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 16-17쪽

요하게 다뤄왔다. 지역 활성화의 매개로 선택한 농촌지역 축제가 지자체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동안 지역공동체는 무관심한 의제가 되었다. 국가에서도 문화관광축제를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선정하여 우수축제 홍보와 축제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 평가는 경제적 측면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더욱 경제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축제연구가 경제적 시각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지역 활성화를 매개로 지자체가 축제를 선택하게 만들고, 몇몇 축제의 성공이 축제 양상을 부추겼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농촌축제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축제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민의 삶과 연계된 사회적, 문화적 시각의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

축제와 관련한 연구는 첫째, 축제개념과 기능, 지역축제의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이전에 진행되었다.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연구하고, 농촌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성격을 강조한 세시풍속으로 유지되고 있음 설명하고 있다. 농촌축제의 기능과 특성을 다룬 연구는 남성진(2011)과 류정아(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농촌축제의 대표적인 성격을 ‘수확의례’로 보고, 생산물에 대한 감사 표현을 축제로 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축제의 대부분은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하거나 자연환경을 활용한다. 2000년대에는 축제를 매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 김상호(2004)의 연구는 농촌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으며, 문건수(2007)와 손기호(2006)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축제로 인해 주체 간의 갈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은정(2011)의 연구는 전통축제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지역정체성을 둘러싼 주체 간의 갈등을 분석하였고, 이정덕(2003)의 연구는 축제를 통해 이익집단이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활용한다는 시각을 펼치고 있다. 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연구한 신현정(2011)의 연구는 축제가 지역민의 소속감, 주체성 강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렇듯 축제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과제로 접근되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정체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 면이 아닌 다면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축제가 경제 분석 위주의 연구에 대한 단편적 해석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연계된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비롯해 2018년~2019년 축제를 참여관찰하고, 6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남성46명, 여성 14명으로서 연령별, 직업별로 분포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

을 통해 지역민의 삶이 다양한 연결망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진안의 사회적 배경과 축제

### 1) 진안의 사회적 변화

진안군은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에 위치하여 임야가 전체 면적의 77%를 차지하는 고원 지형의 산간지역이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경제기반은 농업이 주요하고, 산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농업생산기반은 논이 42.7%, 밭이 57.3%로 15%정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미맥류보다는 과채류와 축산물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안 특화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과, 고추, 수박 품목이 증가하고, 인삼재배도 확장되고 있다. 현재 진안군의 대표작물은 인삼, 홍삼, 흑돼지, 꽃감, 고추, 표고버섯, 한과, 더덕 등 특산물로 소개하고 있다. 인삼이 재배되고 있고, 인삼의 경우에는 연작이 어렵다는 특성상 재배가 줄어들고 있지만 진안의 특산물을 대표하고 있다.<sup>7)</sup>

진안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966년 102,539명이었고,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25,963명이 되었다. 전라북도 인구의 1% 조금 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농촌인구의 이탈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2011년 소폭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진안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20~30대 청년층과 50~60대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유아청소년도 높은 비율이었다. 하지만 점차 70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아청소년과 청년층이 급감하면서 진안군의 연령별 분포는 중장년층 이상이 많아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7) 진안군·진안문화원, 2016, 『진안군 향토문화 백과사전』, 정문당, 18-20쪽

표 1. 진안군 인구변화 추이(진안군·진안문화원, 2016, 진안군 향토문화 백과사전: 1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재구성) (단위 : 가구, 명)

연도	가구수	인구수		
		계	남	여
1961	15,228	90,458	45,433	45,025
1966	17,228	102,539	52,147	50,392
1971	16,971	94,182	47,549	46,633
1976	15,799	92,967	47,130	45,837
1981	14,663	76,358	37,995	38,363
1986	13,898	60,333	30,364	29,969
1991	12,299	41,260	20,163	21,097
1996	12,270	38,125	19,207	18,918
2001	11,338	32,635	16,362	16,273
2006	11,564	27,122	13,748	13,374
2011	12,771	28,473	14,330	14,143
2016	12,654	26,069	13,037	13,032
2019	13,023	25,963	12,935	1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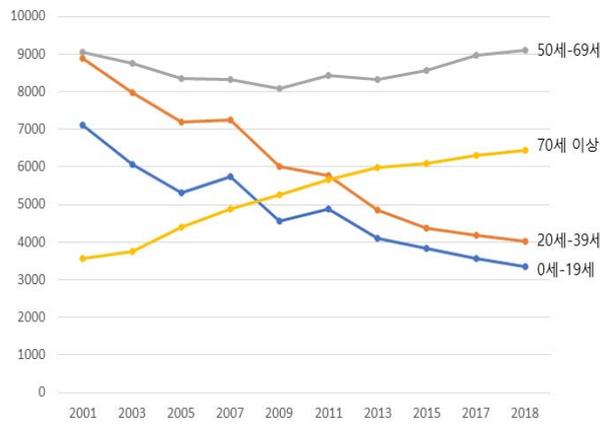


그림 1. 2001년~2018년 진안군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농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진안군은 농업 복합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진안군의 농업복합화 정책은 1990년 제1 농공단지를 연장리에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제3 단지를 ‘진안홍삼한방농공

단지'로 조성하면서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 되었다. 진안 대표브랜드로 자리 매김한 것은 농업복합화 정책에 의한 것이다.<sup>8)</sup> 홍삼산업은 1930년대부터 시작 되었다는 역사성을 기반으로 1974년 전북인삼조합 설립은 체계적인 인삼재배 관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1990년대에는 인삼전매제도 폐지로 민간에서도 홍삼가공이 가능해졌고, 1997년 전북인삼농협이 인삼제조장을 설립하면서 홍삼 가공산업이 육성되었다. 이러한 홍삼산업의 확장을 위해 진안군청 내 홍삼계를 신설하여 홍삼을 진안군의 중점사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진안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홍삼한방특구에 지정되면서 홍삼육성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확장되었다. 2008년 진안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설립은 생산과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추진하는 산업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축이 되었다. 이러한 홍삼산업을 관광과 결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2013년 홍삼축제를 개최하는 정책적 방향이 만들어졌다.<sup>9)</sup>

두 번째 진안의 정책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1995년부터 10여 년 동안 마을만들기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구체화 시키고, 진안군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다. 특히, 귀농귀촌과 마을만들기의 결합은 마을간사 제도, 마을 조사, 마을 축제 등을 중앙정책에 반영시켜 전국적으로 전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농촌개발 전문가를 지방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어 얻게 된 것이다.<sup>10)</sup> 또한 마을만들기 정책은 2011년 가구 수와 인구수가 소폭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홍삼산업에 주력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춤해졌고, 현재에는 지원과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듯 진안군의 정책과제는 크게 홍삼산업과 마을만들기가 주축을 이루었지만 군수의 정책적 관심과 재정지원에 의해 중점산업이 변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 2) 진안의 축제정책과 대표축제

1995년 지방자치제를 기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는 전국적으로 개최되었고, 축제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전국의 축제는 813개,

8) 진안군·진안문화원, 2016, 앞의 책, 20-21쪽

9) 진안군a, 2018, 내부회의자료, 12쪽

10) 구자인·유정규·곽동원·최태영, 2011, 『마을만들기\_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국토연구원, 24쪽

전라북도는 82개가 진행되었다. 2018년은 전국의 축제가 886개로 증가했지만 전라북도는 축제개최의 난립과 프로그램의 중복, 재정 부담, 미흡한 성과 등을 이유로 48개로 감소하였다.<sup>11)</sup> 현재 전라북도는 각 시군마다 대표축제를 지정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은 마이산(馬耳山), 홍삼, 진안고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브랜드를 기반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고로쇠축제, 꽃잔디축제, 수박축제, 홍삼축제, 마이문화제, 마을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는데, 대표축제로 꼽는 것은 고로쇠축제, 꽃잔디축제, 수박축제, 홍삼축제이다.

진안군의 축제지원 근거는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조례에 명시된 축제는 대표축제 4개만 포함되어 있어 진안군의 주요 정책방향인 마을만들기가 있지만 마을축제를 대표축제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이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 정책이 민선 1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지만 군수가 바뀌면서 정책기조가 홍삼산업에 집중하여 현재는 홍삼축제를 진안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있다.

표 2. 진안군의 주요 축제 현황(진안군 www.jinan.go.kr 재구성)

축제명	시작 연도	장소	개최 시기	축제내용
진안고원 고로쇠축제	2005	운일암반일암삼거광장	3월	-고로쇠원정대, 고로쇠 수액막걸리 마시기, 송어잡기 등
진안고원 꽃잔디축제	2009	원연장마을	4월~5월	-꽃잔디 음악회, 전통놀이, 화관·꽃등·화분 만들기 등
진안군 마을축제	2008	여러 마을	3월~10월	-300개 마을에서 지속 운영 -농촌 공동체 활성화 과정
진안고원 수박축제	2012	동향면	7월	-동향면 대표 특산품 -수박왕 경진대회, 전시, 체험 등
진안홍삼축제	2013	마이산북부	10월	-진안풍물굿 경연대회, 공연, 전시, 체험, 트로트페스티벌 등
마이문화제	1995	마이산 은수사	10월	-1984년~1994년 마이산신제 -군민의 날에 맞춰 진행(1963년) -마이산신제, 금척무, 대취타 공연, 생활문화 동호회페스티벌 등

11) 박민규, 2013, 『경상남도 거창군의 지역문화축제에 관한 연구 : 대중음악 콘텐츠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 13쪽; 오윤서, 2015, 『지역축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부천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 29쪽

진안홍삼축제는 진안군 전략산업의 주요 품목인 ‘홍삼’을 소재로 한 대표축제이다. 이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시작연도가 늦지만 대표축제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대표축제로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축제 명칭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축제명칭이 중요한 것은 진안군의 대표 특산물인 홍삼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경제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진안홍삼축제였던 명칭은 2015년에는 진안향토축제인 ‘마이문화제’와 결합하였다. 마이문화제는 1984년 마이산신제를 시작으로 지역민이 함께하는 종합문화 예술행사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축제를 홍삼축제와 결합한 이유는 홍삼만으로 축제를 만들기에 성공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문화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지역의 대표이미지를 모두 담아내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2015년 축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면서 2016년 2월 지역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진안홍삼축제’로 결정하고, 대표축제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지역민들에게서 표출되고 있다.

진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마이산이 떠올라요. 우리도 그렇지만 밖에서도 마이산이라고 하면 진안인줄 다 알잖아요. 요즘은 홍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군에서도 홍보하고 하니까 홍삼을 알아주기도 하지만 마이산이 제일이죠. 또 여기가 고원이다 보니까 높잖아요. 그래서 고랭지 채소가 유명하고 하니까 알아주기도 하죠. (인터뷰 30, 한○○, 50대 초반)

그때 기억을 해보면 위원회의(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때 군에서도 의견을 냈었어요. 제안한 것이 진안고원홍삼축제였던가 그랬는데 연구결과가 주민들도 그렇고 그때 전문가들도 홍삼축제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으로 되었어요. (인터뷰 43, 김○○, 30대 후반)

2013년 시작한 진안홍삼축제는 2014년 취소되었다가 2015년 재개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6년부터 진안홍삼축제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개최하면서 방문객 수가 2017년은 26만 명, 2018년은 21만 명으로 매년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sup>12)</sup>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5년 5억 6천만 원,

12)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2017년 전라북도 시·군대표축제 평가보고서』, 전라북도·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쪽; 이덕순 2018, 『2018년 전라북도 시·군대표축제 평가보고서』, 전라북도·사)문화관광산업연구원, 46쪽

2017년에는 5억 8천만 원을 투입했고, 2018년에는 2억 2천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이다.<sup>13)</sup> 이처럼 예산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볼 때, 진안군은 대표축제로 육성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진안홍삼축제 연혁(진안군 www.jinan.go.kr; 2015년~2018년 축제평가결과보고서 재구성)

연도	기간	장소	축제명	대표프로그램	전년대비 변경사항
2013	4.19 -4.23 (5일)	마이산 북부	2013 진안홍삼축제	홍삼주제관 홍삼 족욕	최초 개최
2014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				
2015	10.30 -11.1 (3일)	마이산 북부	2015 진안고원 홍삼축제 &제21회 마이문화제	홍삼대방출, 삼삼한도 전, 몽금척퍼레이드	-마이문화제 공동개최 -마이산북부 테마파크 준공으로 공간 확장
2016	10.12 -16 (5일)	마이산 북부	2016 진안고원 홍삼축제	전통증삼체험 홍삼대방출	-진안군 대표로 지정 -홍삼기업관 확대외 국인 바이어 유치
2017	10.19 -22 (4일)	마이산 북부	2017 진안홍삼축제	전통증삼체험, 홍삼대 방출 현대식증삼체험 엽기홍삼가래떡 홍삼대박터뜨리기	-홍삼주제프로그램 강화 :전통, 현대 증삼관 구분 -관광객 매일 체험 강화 -마이산별빛걷기
2018	10.18 -21 (4일)	마이산 북부	2018 진안홍삼축제	홍삼주제관, 홍삼경매 현대식증삼체험 돼지복홍삼가래떡 홍삼연못금거북이찾 아라	-주민주도형 축제운영 :홍삼특공대 운영 등 -축제자립도 강화 :프로그램 유료화

축제를 운영하는 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홍삼분야와 문화분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홍삼분야는 진안군에서 육성산업의 기반으로 조성한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진안홍삼연구소, 전북인삼조합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문화분야는 진안예총, 진안문화원 등의 대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sup>14)</sup> 이들은 연 4회 회의를 통해 축제를 운영하는 방향과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별 체계를 보면, 진안군은 축제팀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축제의 기본계획 수

13) 진안군c, 2019, 내부회의자료, 116쪽

14) 진안군a, 2018, 내부회의자료, 9쪽

립을 비롯한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맡고 있다. 이는 민간기구인 추진위원회가 있다하더라도 진안군이 축제 전반을 총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체제에서 드러나는 구도는 민간기구와 행정의 긴밀하게 연결된 민간협력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안군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축제프로그램은 홍삼을 주제로 한 대표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등 30여개가 운영된다. 대표프로그램은 홍삼주제관을 비롯해 진안홍삼 경매, 홍삼캔 탑 쌓기 등 타 축제와 차별성을 갖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 외에 진안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진 마이산신제, 금척무 공연, 진안 중평 굿 등 문화예술프로그램과 방문객 확대를 위한 이벤트인 트로트페스티벌이 축제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축제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와 방문객들은 홍삼자체가 갖는 차별성은 충분하나 여전히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기에는 전문성과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진안군과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매년 고심하고 있다.

### 3. 축제를 둘러싼 주체 간의 정치경제적 영향

#### 1) 축제의 경제효과와 축제 참여에 대한 경험

진안홍삼축제는 진안군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대표축제로 급성장하였다. 매년 관람객의 숫자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매년 시행되는 평가를 보면, 방문객 숫자는 2015년 6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0만 명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2017년 26만이었다가 다음 해에 5만명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5년 36억 정도에서 2018년 330억 정도까지 상승하였다.<sup>16)</sup> 경제적 파급효과란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말한다. 산정항목은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이고, 측정방법은 “축제의 방문객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의 합계를 방문객 1인당 지출금액으로 산출한 액수”이

15) 진안군 <http://jinanfestival.com/?hongsam=30200>

16) 유상춘, 2020, 『농촌지역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진안홍삼축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 44쪽

다. 비용지출 세부항목은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체험 등)비용으로 구분한다.<sup>17)</sup>

표 4. 2015년~2018년 방문객 수와 경제효과(이덕순 2015; 이덕순 2016;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이덕순 2018 재구성)

구분/연도		2015	2016	2017	2018
방문객 (명)	지역민	9,534	10,772	17,010	14,419
	관광객	49,318	91,823	248,774	200,794
	합계	<b>58,852</b>	<b>102,595</b>	<b>265,784</b>	<b>215,214</b>
경제효과(원)		3,678,062,476	7,456,502,433	15,500,546,270	33,080,286,481

방문객의 평균지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8만 원 정도 감소한다. 그러나 1인 지출은 2017년 58,963원에서 2018년 3배가 증가한 160,086원이다. 1인 지출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교통비가 2017년보다 2018년이 3배 증가한 16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먼 거리의 타 지역 관광객이 방문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숙박비, 유흥비, 쇼핑비도 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식음료비의 1인 지출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평가보고서에 의존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한계점일 수 있는데, 정량적 수치로는 밝히기 어려운 식음료비가 왜 줄어들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홍삼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의 인터뷰 내용을 볼 때, 진안군의 향토음식을 비롯한 홍삼을 주제로 한 음식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홍삼음식의 개발이 필요하고 음식의 종류와 맛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난다.<sup>18)</sup>

표 5. 2015년~2018년 방문객 평균지출과 1인 지출(이덕순 2015; 이덕순 2016;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이덕순 2018 재구성)

구분/연도		2015	2016	2017	2018
방문객	평균지출	147,191	180,368	185,466	106,428
비용지출(원)	1인지출	62,583	72,698	58,963	160,086

홍삼축제에 대한 생각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안산 돼지고기나 홍삼한우를 이용해서 시식 코너도 만들고 판매장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

17) 류정아 2006, 앞의 책, 17쪽

18)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45쪽

데. 홍삼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5, 김○○, 30대 중반)

축제의 만족도는 82.3점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작년에 비해 만족도 점수는 1.8점 낮아졌지만 만족도 평가항목 10개 중에서 먹거리와 살거리는 5.5 점 내외로 나타나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듯이 홍삼을 활용한 음식개발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만족도 평가항목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재방문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만족도 중에서 5.9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관람객의 재방문 답변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축제의 서비스가 좋아지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재방문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충성도 높은 관람객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9)</sup>

표 6. 2015년~2018년 방문객 평균지출과 1인 지출(이덕순 2015; 이덕순 2016;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이덕순 2018 재구성)

구분/연도		2015	2016	2017	2018
만족도(점)	만족도	79.6	76.6	84.1	82.3
	재방문(7점척도)	5.4	5.4	5.51	5.9

진안홍삼축제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진안군의 재정지원에 비해 경제효과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역민에게 활력을 주는 축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경제수치가 실제 축제에 참여하는 농업, 상업, 행정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축제를 참여하는 경험을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농업의 경우에는 인삼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농가, 인삼재배와 홍삼가공을 병행하는 농가, 홍삼가공과 유통만을 하는 업체로 구분된다. 진안군의 인삼재배 농가는 700여 호가 넘고, 홍삼관련 식품 제조업체는 139개에 달하며 홍삼 식품만 제조하는 업체는 93개이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수공업 형태로 운영되고, 4개 업체만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기업 C 회사의 진안공장이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sup>20)</sup> 이러한 홍삼산업의 현실을 인지하여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클러

19) 심규원·조덕호, 2009, 『농촌지역축제의 만족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21(4), 250-251

스터사업단을 만들고, 홍삼연구소를 설립하여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진안홍삼축제에 참여하는 농업분야 중 인삼재배 농가는 홍삼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축제에서 수삼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수삼은 별도의 가공비가 들지 않고 축제에서 관람객의 호응도가 높아 매출이 높은 편이다. 축제에 참여한 한 인삼농가는 한 달 동안의 수입보다 축제기간 동안 2천만 원 정도의 판매수입을 올렸다고 말한다(인터뷰 48, 고○○, 50대 중반). 따라서 축제참여에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지만 700여 개의 농가 중 10가구 정도만 참여하고 있어 축제참여에 경쟁이 심하고, 수삼의 보관문제로 대량판매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불안감으로 축제참여를 꺼리기도 한다.

진안에서 홍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진행한다지만 인삼을 재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공무원이 무얼 하는지 우리 같은 농민들을 위해 노력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51, 김○○, 60대 후반)

인삼재배와 홍삼 가공을 병행하는 농가는 평소에 인삼판로가 적어 홍삼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가공시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안군의 공식 홍삼인증을 받기 어려워 개별적으로 홍삼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하여 단기간에 홍삼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축제참여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농가의 경제적 만족은 높지 않다. 진안홍삼의 인지도가 낮고 외부 환경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제가 큰 효과는 없다고 말한다.

인삼 농사와 홍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군 행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홍삼축제가 그다지 홍보 효과는 없어요. 인삼이나 홍삼은 건강보조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올해는 작년보다 도 60%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향우회에 참여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나아요. 인삼 농가나 홍삼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효과를 느끼지는 못해요. (인터뷰 23, 안○○, 50대 후반)

20) 진안군d, 2019, 내부회의자료, 1-4쪽;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47쪽

축제에 참여의지가 가장 높은 홍삼만을 판매하는 상가는 관광객 숫자에 따라 매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부분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여 2017년의 매출이 훨씬 높았다고 체감한다. 진안군에서 발표한 경제적 효과, 만족도, 1인지출은 분명 2018년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2017년의 수익이 더 높아 행정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방문객의 숫자가 많고 평균지출이 높아 실제로 농가에서 얻은 수익이 높았던 것이다.

진안군의 상인 구분은 상업활동의 위치에 따라 마이산 인근상가, 읍내 전통시장과 개인 상가로 구분된다. 축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하는 상인은 마이산 인근 상인이다.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가 마이산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마이산 관광객으로 매출이 높은 곳이다. 여기에 축제기간동안 많은 방문객이 오기 때문에 매출은 30~5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축제 기간 중에는 매출이 평소보다 50% 정도 실제로 증가하죠. 그렇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친분 있는 단골들이 외지손님과 같이 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축제가 활성화되려면 홍삼 주제에서 벗어나 야시장을 활성화 하고 밤에 불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37, 정○○, 50대 중반)

반면, 읍내와 전통시장(읍내 위치)은 마이산 인근에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읍내에는 오는 사람이 적어 경제적 도움이 전혀 없고, 매출이 최소 10~20% 감소한다(인터뷰 6, 인터뷰 7). “주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외지인들 주머니에서는 쉽게 돈이 나오지 않아요(인터뷰 41, 박○○, 50대 후반).”라고 읍내 상인은 매출하락을 더 크게 체감한다. 이들은 평소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품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역민이 축제로 이동되어 축제장소에 대한 불만이 크다. 따라서 읍내 상인은 축제장 인근과 축제에 참여하는 상인만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손해보고 있다는 ‘상대적 소외감’이 작용되고 있다.<sup>21)</sup>

바쁜 일 때문에 축제장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축제를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마트의 경우 축제기간 중에는 매출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기도 해요. (인터뷰 6, 신○○, 40대 중반)

21)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56쪽

축제에 참여하는 일부 읍내 상인은 소득이 높다는 평가와 손해를 본다는 평가로 나뉜다. 소득이 높다는 평가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의 의견이고, 손해를 본다는 상인은 진안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가이다. 진안특산품 판매는 매출이 1천만 원정도 되지만 판매금액을 진안군과 협의하다보니 낮은 가격에 팔거나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음식부스에 들어가는 상인은 축제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한 음식부스의 경우, 진안군에서 홍삼구매의 30%를 지원하고 부수적인 음식 판매도 허용하고 있어 축제기간 발생하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sup>22)</sup>

군에서 홍삼 1개에 300원 보조를 받고 사서 했죠. 이것만 해서는 마진이 별로 없구요. 오텐이나 다른 것도 함께 팔다보니까 950만 원 정도 팔았어요. 다른 부스에 비하면 수입이 좋았죠. 마땅히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깐 줄을 서가며 사먹을 정도로 바빴어요. (인터뷰 16, 이○○, 50대 초반)

행정은 홍삼축제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수한 진안홍삼을 홍보하고, 마이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축제로 성장시켜 경제적 활성화를 성과로 얻고자 한다. 그래서 축제 연혁이 짧지만 홍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경제소득의 수치와 방문객의 숫자를 근거로 축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sup>23)</sup> 진안군은 2018년 내부평가보고회에서 홍삼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분리로 우려했던 관람객 감소는 없었다는 점과 관람객이 전년 대비 “1천명 이상 증가했고, 휴일에 교통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축제장 구성과 프로그램 기획도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자체적인 긍정적 평가로 인해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성공적인 축제로 보았다.<sup>24)</sup> 진안군의 대표이미지를 홍삼으로 만들려는 행정의 전략과 달리 타 지역 방문객은 ‘마이산’을 진안군과 연결짓는 매개로 보고 있다. 외부인에게 홍삼은 인지도가 낮고, 오히려 지인에게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22)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58쪽

23) 진안군b, 2018, 내부회의자료, 3쪽

24) 진안군b, 2018, 내부회의자료, 3-7쪽

진안하면 썰 생각나는 게 마이산이잖아요. 신기한 돌탑도 구경하고 길 따라서 암마이봉에 올라가면 고향에 온 것처럼 즐거워요. 사실 마이산 때문에 진안을 알게 된거죠. (중략) 홍삼축제는 방송에서 홍보 하는 거 보고 알긴 하는데 와 본적은 없어요. 홍삼보다는 인삼을 몇 번 사간 적은 있죠. (인터뷰 53, 김○○, 60대 초반)

이렇듯 진안군은 정량적인 수치로 경제적 효과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지만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 상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는 방문객 숫자와 비례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이 2018년보다 경제적 효과는 낮지만 축제에 참여한 상인은 “재미를 보았다”, “없어서 못 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참여자의 반응은 경제효과의 기준이 되는 방문객의 1인 지출이 높아져서 경제효과가 두 배로 높아졌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효과는 실제로 차이가 있다.<sup>25)</sup>

## 2) 축제를 매개로 한 정치적 경합

진안홍삼축제의 추진체계는 매년 초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축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에 구체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민간 중심의 추진단이 참여한다. 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전년도의 문제점 보완,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 축제운영 전반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이렇듯 민간 중심의 조직으로 위원회가 운영하는 체계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추진체계 이면에는 진안군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축제조직으로 볼 수 있다. 사무국의 사무실 운영은 명분만 만들어놓은 실질적 운영이 미비하고,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자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축제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는 진안군청의 ‘축제팀’ 소속 4명이 축제전반에 대한 사항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운영조직은 축제에 대한 지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생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수의 입맛만 불렀다”거나 “자기들끼리 다해먹는다”는 식의 말을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프로그램 선정과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자리에서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sup>26)</sup>

25)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70쪽

26)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73-76쪽

축제위원회는 ○대표이라는 직함 때문에 □대표와 같이 의무적으로 참석합니다. 홍삼축제가 열리는 10월까지 4번 정도 참석합니다. 주로 행정이나 축제 담당자가 큰 틀의 계획을 세우면 위원회에서 살도 붙이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지만 대부분 행정 틀로 따라갑니다. 보통 회의시간은 위원들이 인사 나누고 1시간 정도 진행하면 참가한 위원들한테 7만원 회의수당을 줘요. (인터뷰 44, 이○○, 50대 중반)

홍삼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지역민은 불만을 토로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분야별로 기관의 대표가 참여하기 때문에 군수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기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와 상인은 축제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참여하게 되면 진안홍삼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에 주력해주길 바라지만 추진위원회는 농가와 상인을 고려한 운영을 하지 않아 손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sup>27)</sup>

홍삼의 원재료가 뭐겠어요. 인삼이잖아요. 그런데 농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인삼 농가 참여도 있어야 하고, 호응도 있어야 축제가 잘되는데 아쉽죠. 위원들은 농민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농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48, 고○○, 50대 중반)

군수의 지지 세력은 진안홍삼이 진안군의 주력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축제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클러스터사업단과 연계된 홍삼 업체와 축제추진위원회는 홍삼제품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기구이다. 진안군은 군수가 인증하는 홍삼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식적인 진안홍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홍삼의 질을 비롯해 현대식 설비까지 갖춰야한다. 소규모 농가가 많은 진안의 홍삼농가의 여건 상 인증을 받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홍삼업체 중 ◎◎인삼과 진안◇◇홍삼은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두 업체는 진안홍삼축제를 주도하고 군수가 주력하는 홍삼산업의 큰 축을 이룬다. 특히, 진안홍삼축제의 홍삼음식 중 김밥이나 튀김 등에 사용되는 홍삼을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축제기간 동안 음식에 사용되는 홍삼은 크기가 작고 품질이 떨어져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이나 방문객의 불만이

27)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76쪽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여전히 홍삼을 납품하고 있어 군수의 지지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sup>28)</sup>

홍삼 단가가 비싸고 크기도 작고 질도 떨어져서 불만이 많았어요. 홍삼 1뿌리에 1천 원씩 하는데 도저히 마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군에서 업체를 연결해줘서 거기서 사서 썼죠. 품평회할 때는 크고 좋은 것을 쓰니까 제대로 맛도 나고 그랬는데 축제 때 팔려고 하니 질도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서 제대로 안 나오니까 사먹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죠. (인터뷰 16, 이○○, 50대 초반)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에는 큰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축제에 필요한 운영 물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군수가 표방하는 홍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기반을 가진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농가와 상인은 불만이 없지만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군수는 지지세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을 쓰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축제를 활용하기도 한다. 활용 방법으로는 축제의 운영예산을 늘리거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축제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축제운영은 전적으로 행정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도하는 군수의 영향력은 크게 작용한다. 축제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군수의 영향력이 축제에 어느 정도 미치느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축제의 규모가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재정기반이 약한 진안군에서 진안홍삼축제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군수의 힘이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 경제 분야 등 영향력 있는 진안향우회 임원들을 축제에 초청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에서 모여 장학금을 기부하고, 홍삼을 구매하는 등 군수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에 화답하듯 군수는 공개적으로 향우회의 임원들을 부각시키는 발언을 한다. 군수는 무대에서 “아! 굉장하네요. 작년에 비해 더 많이 참석했네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관광객들에게 불편 없이 불거리, 떡거리, 추억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sup>30)</sup>라는 인

28)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78-79쪽

29)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81쪽

30) 오늘뉴스 2018.10.22. 기사 [http://www.onulnews.com/sub\\_read.html?uid=45094](http://www.onulnews.com/sub_read.html?uid=45094)

사말을 한다. 또한 향우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여러 인사들과 정치적 친분을 유지하면서 홍삼축제에 대한 홍보도 한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향우님들이 진안사람 어울 한마당을 열어주는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다. 장학금도 매년 크게 내놓으셨다. 고향 진안이 희망 진안이 되는 것은 향우님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이다”<sup>31)</sup>라고 말한다. 군수와 향우회는 서로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축제를 매개로 매년 자리를 함께 한다.<sup>32)</sup>



사진 1. 진안군향우회 신년인사회에 진안군수 참여  
(전북일보 2017.1.19.기사)

진안홍삼축제의 정치적 영향은 각 주체가 경험하고, 추구하는 목적과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은 홍삼을 매개로 축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성과로 잡으려고 집중한다. 또한 군수의 업적과 지역이미지를 위해 읍면 관계자, 유관기관까지 모두 동원하여 축제에 참여시키고 있다. 농가의 경우에는 진안인삼에 대한 자부심과 판로 확대에 주력한다. 상인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상권이 축제기간 이후에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주체별 기대와 목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은 발생하고 있다.

진안홍삼축제로 형성되는 이해관계는 지자체와 홍삼 업체, 지자체와 상인, 농가와 상인, 상인과 상인 간에 형성된다. 지자체와 홍삼 업체의 관계는 군수가 인증하는 진안홍삼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나타난다. 홍삼 업체는 진안홍삼

31) 전북일보 2017.1.19. 기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670>

32)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82쪽

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품질인증이 되면 클러스터사업단의 홍보·마케팅으로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진안군의 선물구입과 홍보용 홍삼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업체가 되면서 군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인증 받은 홍삼 업체는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sup>33)</sup>

지자체와 상인의 관계에서는 진안 내에 존재하는 3개의 상인회와 연결되어 있다. 진안고원 전통시장, 진안군 상공인연합회, 북부마이산 상인회는 상업 활동을 하는 위치와 상업형태로 구분되어 설립하였다. 전통시장은 행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에 행정에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거나 저렴한 임대비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 관계이다. 상공인 연합회는 읍내 상가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축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 편이다. 축제장소가 마이산이 되면서 읍내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가지원이 되면서 표면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북부마이산 상가는 축제장 인근에 있어서 축제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면서 지자체의 간섭이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마이산 상인회는 설립이 가장 늦지만 진안군은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마이산 상인회의 회원이 경제력이 높고, 마이산이 진안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행정의 전략적인 관광산업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읍내에 형성된 상인회는 오랫동안 진안군의 상권을 주도했지만 점차 주도권이 약화되면서 불만요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상인회는 서로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모두 진안군을 향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주로 갈등이 표출된다.

농가와 상인 간의 관계에서는 인삼재배와 홍삼가공을 직접 하는 농가와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갈등을 빚는다. 농가는 진안인삼에 대한 자부심으로 힘들게 재배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판매만 하는 상인은 도매로 가져와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서로 시선이 곱지 않다. 또한 2017년 축제의 인삼 판매 부스에서 금산인삼박스가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민감하게 갈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매출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체감되기 때문에 축제기간 동안 경쟁을 하고 있다. 즉, 소농의 농가는 수삼을 판매할 때 보관이 어려워 대량판매를 할 수 없고, 인삼을 사서 판매하는 상인들은 저

33)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86쪽

장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매출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sup>34)</sup>

축제가 진안군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 맞아요. 하지만 축제장 인근 상인과 부스에 참여한 상인들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상인들도 있고, OO농협에서 사서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는데 이들이 경쟁이 심해요. 왜냐면 축제 기간 중에 인삼 판매하는 수입이 두 달 매출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사서 파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인터뷰 10, 노○○, 50대 중반)

이렇듯 진안홍삼축제를 둘러싼 지자체, 농가, 상인 등의 관계는 축제에 대한 자신의 여건과 사회적 위치, 축제참여 동기 등 다양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시각도 차이가 있다. 각 주체는 축제와 연관성을 가지며 자신의 위치짓기를 위해 끊임없이 표현하고 갈등을 생산해내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 4. 축제참여가 지역민에게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

##### 1) 지역민의 참여의지와 놀이장소로서의 역할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통합의 기회로 삼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축제는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각 지역마다 문화적인 정체성을 실현하는 매개체가 되고, 지역문화를 재생산하는 계기로 삼는다.<sup>35)</sup>

진안홍삼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은 지역구성원이 축제에 참여하는 의지는 무엇이고, 축제가 지역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힘으로써 알 수 있다. 축제에 관여하는 주체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농가, 상인, 자원봉사, 주민, 관광객 등으로 구분된다. 축제추진위원

34)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90쪽

35) 류정아, 2006, 앞의 책

은 홍삼분야와 문화분야로 나뉘는데, 홍삼분야는 행정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과 인삼 조합, 군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분야는 진안군의 문화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관의 대표가 맡고 있다. 또한 축제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음식분야 위원은 마이산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 전체적인 음식개발과 진행을 맡고 있다.<sup>36)</sup>

마이산 근처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축제위원은 명목상이고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들은 군수나 공무원들이 정해서 설명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37, 정○○, 50대 중반)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과 인맥을 쌓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군에서도 활동을 했죠. 지금도 진안군 △△단체회장을 맡고 있고 축제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중략) 축제에서 위원을 맡다보니까 홍삼을 이용한 음식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음식부스에 참여하는 업체와 고민이 많아요. (인터뷰 49, 한○○, 50대 후반)

축제의 운영측면에서 안전과 방문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차장과 축제장 안전을 전담하고 있다. 이렇듯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를 행정에서 결정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상인과 홍삼농가는 필요에 의한 참여와 행정의 요청에 의한 참여로 유형이 구분된다. 자발적 참여는 진안인삼과 홍삼의 인지도가 낮아 판로가 적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행정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축제운영에 꼭 필요한 분야이거나 음식부스 참여를 요청한다. 진안 특산물 판매나 방문객이 선호하는 음식판매는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라서 참여를 권유한다. 수삼판매와 홍삼제품 판매의 경우에는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홍삼한방센터에 입주한 상가들이 많아 의무적으로 일정한 숫자만큼 상가가 참여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인은 축제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

36)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92-93쪽

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의지를 갖고 있다. 특히, 음식부스는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가 선호하는 분야이다. 한 예로, 축제에서 홍삼을 판매했던 상인은 수익이 높지 않자 음식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많이 낸 경우도 있다. 이 상인은 이후에도 음식부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음식부스의 상가, 홍삼판매 부스에 참여하는 상인은 축제기간이 새로운 판로로 확보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참여의지는 높게 나타난다.<sup>37)</sup> 상인의 입장에서 판매수익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축제를 통해 수익이 높아지면 참여의지가 높고, 수익이 낮으면 품목에 관계없이 참여의지는 떨어진다. 하지만 행정에서 필요에 따라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이 낮더라도 지자체와의 호의적인 관계를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2. 2018 진안홍삼축제 먹거리 부스(연구자 촬영)

지역민은 축제에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여러 형태로 참여한다. 자원봉사자는 축제에 약 120명 정도 참여하여 주차장, 축제장 관리, 방문객서비스, 안내 등의 일을 한다. 이들은 진안군 내에서 활동하는 37개 자원봉사단체에서 3~4명을 선발하여 추진위원회의 자원봉사분과를 통해 관리된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의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으로서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자체의 행사나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축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연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지역사회에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

37)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91-95쪽

기 때문이다.<sup>38)</sup>

진안에는 37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축제를 할 때는 각 단체에서 3~4명씩 지원을 받아서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100여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축제 때 자원봉사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인터뷰 40, 정○○, 40대 중반)

홍삼축제가 시작하는 해부터 매년 봉사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진안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인 만큼 여러 자원봉사단체에서 구역을 정하면 그 곳에서 차나 음료를 나눠주거나 행사장 안내를 담당하고 있어요. 진안에서 열리는 다른 고로쇠축제나 수박축제도 매년 참여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17, 유○○, 50대 후반)

자원봉사 분야 중 특이점은 청소분야의 참여이유와 관계성이다. 지자체와 업무적으로 연결된 청소대행업체가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점은 행정의 압력과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업체의 대표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적인 축제 즐기기과 업무상 지자체와의 관계가 혼합되어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시설 청소를 대행하고 소독방역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삼축제기간에 메인 행사장하고 그 주변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를 3년째(16년~18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직업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진안군에도 도움이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축제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50, 구○○, 50대 초반)

자원봉사자는 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갖는다. 그 이유는 자원

38)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97쪽

봉사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축제가 자긍심과 애향심을 발현시키는 요인이 되고, 축제진행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스스로 강화시킨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교류의 장으로 삼으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된다.<sup>39)</sup> 즉,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는 상호간에 사회적 연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 과정은 미참여 주민과 관람객으로만 참여하는 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은 대부분 상인이 많고 농업도 일부 있다. 진안읍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축제가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축제가 낮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시간에도 상가는 운영되기 때문에 소규모 상가의 경우 축제참여는 어렵다. 또한 마트, 주유소, 정육점, 농기계수리점 등 축제에 진입할 수 없는 품목은 축제장 방문이 어려워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인들이 많다. 농가에서도 홍삼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업을 하는 경우 수확시기와 축제기간이 맞물려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참여가 어렵다.

우리가 하는 일(마트운영)이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축제장에는 못 가봤어요. (인터뷰 6, 신○○, 40대 중반)

축제하는 것은 매년 알고 있는데 그때가 농민들한테는 가장 바쁜 시기라 축제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정천)면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다 보면 이사람 저사람 얘기를 많이 듣게 되요. 농촌 현실이라든지 농민의 고충을 알 수 있는데 인삼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인터뷰 24, 안○○, 60대 초반)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은 방문하는 목적이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지역민 중 부스를 운영하는 직접적 참여자를 제외하고 방문을 목적으로 한 일반 관람객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대한 관심과 만남의 장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다. 세부유형으로 구분하면 첫째는 축제를 즐기 위한 목적, 둘째는 지인을 만나는 장이면서 놀이의 장으로서의 목적, 셋째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면서 축제

39) 류정아 2006, 앞의 책, 20쪽

에서 사용하는 지출금액은 대부분 2~5만 원 정도가 많고, 10만 원 정도 소비하는 주민도 꽤 많은 편이다. 지역민의 축제 참여는 한정된 지역범위 안에서 소비의 장소가 일시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안읍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의 불만 중에서 축제장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을 볼 때, 소비의 장이 읍내에서 축제기간에는 축제장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확인된다.

축제 때가 되면 (진안)군 직원이 홍보하고 곳곳에 현수막도 걸리고 진안신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트로트페스티벌을 보러 축제장을 가죠. 가족들이랑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먹기도 하다보면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인터뷰 7, 정○○, 60대 초반)

하지만 만남의 장으로서 축제장을 찾는 긍정적인 반응 뒤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점을 불편해하기도 한다. 주민 간의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 팽팽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민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 오히려 자유로움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일(자영업) 때문에 축제에 관심은 있어도 낮에 하는 공연은 못하고 가수공연(트로트페스티벌)이 있는 저녁에 주변 아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마시면서 보고와요. 축제에 가면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좋긴 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니까 불편하기도 해요. (인터뷰 28, 신○○, 60대 초반)

지역축제는 지역민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과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장을 마련해준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놀이의 장이 되면서 만남의 장이 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농촌지역 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역사회의 관심, 지역민의 애착심, 지역사회 신뢰, 행정과 민간의 지역사회 협력, 지역민의 문화활동 촉진으로 나눌 수 있다.<sup>40)</sup> 축제의 복합적인 기능은 지역민의 문화활동 욕구를 발현시키는 매개가 된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은 아직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고, 지역특산물이 축제의 주제가 되면서 전통적인 수확의례의 기능을 내

40) 박경철, 2006, 『지역축제의 농촌지역활성화 사례 연구 : 효석문화제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6(1), 224쪽

포하고 있다. 전통사회의 축제는 오락성과 제의의 종교성이 결합된 공동체문화의 핵심이 되지만 현대사회의 축제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관광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의미의 축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진안홍삼축제는 전통적 축제와 현대의 축제성격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트로트페스티벌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대중가수의 노래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수를 보기 위해 홍삼축제를 방문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트로트페스티벌은 3만 명이 넘는 관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축제의 전체 관람객 숫자를 높인다. 이러한 트로트페스티벌은 홍삼축제의 저녁시간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고, 낮 시간에는 홍삼판매와 홍보 등 축제 본래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sup>42)</sup>

해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행사장을 (가요). 금산에 있는 친구들이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마이산에서 먹자고. (인터뷰 9, 김○○, 50대 후반)

어쩌다 노래자랑 하는 날이 쉬는 날이면 회사 직원들하고 저녁에 밥 먹고 술 먹고 즐기긴 해요. (인터뷰 36, 정○○, 50대 초반)

축제에 참여하는 동반자는 매년 가족과 친척이 참여하는 비율이 60~70%로 나타난다. 지역민이 방문하는 목적도 지인과 함께 식음료를 소비하고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참여한다는 의견이 많다. 혼자 방문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5년 2.2%였지만 2017년에는 7%로 꾸준히 상승하였다.<sup>43)</sup> 축제에 혼자 오는 방문객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역민의 방문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역민의 방문객 수도 2015년은 9,534명, 2016년은 10,772명, 2017년은 17,010명, 2018년은 14,419명으로 나타난다.<sup>44)</sup> 이 결과로 볼 때, 지역민의 방문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축제를 놀이의 장소로 인식하고 지인과 함께 축제 공간에서 즐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안군은 인구가 2만5천여 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으로서, 산간의 비율이 높

41)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103-104쪽

42)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104쪽

43) 이덕순 2015: 6; 이덕순 2016: 6; 전주대산학협력단 2017: 13; 이덕순 2018: 5

44) 이덕순 2015: 49; 이덕순 2016: 50; 전주대산학협력단 2017: 45; 이덕순 2018: 48

아 행정의 중심지인 읍내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다. 지역민은 진안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주와 거리가 가까워 전주까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이동하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은 진안에 머물기 때문에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따라서 진안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진행되는 축제는 지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행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축제규모가 커서 읍면의 주민까지 모든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페스티벌은 홍삼축제의 주제와 상이하지만 지역민에게 대중가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트로트공연이 진행되는 날은 지역민의 방문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민에게 축제에 대한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물었을 때, 다수의 지역민이 트로트공연이라고 말한다. 이는 지역민에게 즐기는 공간이면서, 사교의 의미로서 홍삼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5)</sup>

## 2) 진안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

진안은 대외적으로 마이산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홍삼이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정과 청결’은 전국 8위를 차지했고, ‘산과 계곡’으로 인지되는 정도도 전국 14위로 나타난다.<sup>46)</sup> 이러한 결과는 진안군의 경제적 조건은 낮지만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심리적 여유를 느끼는 환경기반에는 만족도가 높다. 특히, 농촌에서 경험되는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는 관계형성이 만족도를 높인다. 한 예로, 마을주민 간에 공동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먹고, 외부사람이 방문했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 인심이 남아 있어 살기 좋다는 표현을 한다. 또한 마을에 젊은 층이 적어 외부에서 청년들이 방문하면 더욱 후한 인심을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동은 진안군의 마을에 여전히 남아 있고, 읍내보다는 읍내 외곽마을에서 더 잘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민의 공동체성의 체화는 축제참여의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

공기가 좋잖아요. 바쁘게 일하다가도 가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더디게 움직이는 삶이 좋아서 여기(진안 연장리) 살죠. 도시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마을에서 가끔 모여서 점심을

45)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107쪽

46) 대한민국 관광자원 정보 플랫폼

<http://www.consumerinsight.co.kr/travel/recommend/research1.aspx>

해먹는데 이런 것도 좋죠. 아직 정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가 먹고사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농사짓고 하니까 굶지는 않으니까 좋죠. (인터뷰 58, 김○○, 50대 중반)

진안군의 지역민들은 마이산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갖는다. ‘진안사람’이라는 단어는 마이산과 연결되어 “마이산이 멋있다고 하면 우쭐해 지죠.”(인터뷰 59, 김○○, 50대 후반)라는 말처럼 진안에 산다는 점과 마이산이 있는 진안에 살고 있는 진안사람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나타낸다. 지역민이 자부심을 갖는 또 다른 요인은 진안홍삼축제를 통해서 나타난다. 방문객 중에는 진안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비롯해 타 지역의 지인을 초대한다. 지역민이 축제를 통해 경험하는 자부심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지인을 초청하여 마이산을 배경으로 한 축제장을 선보이고, 음식을 제공하는 “대접하기”이다. 축제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진안의 자연환경의 장점을 소개하여 진안사람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두 번째는 친척, 동료, 친구와 축제를 방문하면서 “친분 쌓기”를 하는 사회활동이다. 축제를 매개로 지역민은 혈연과 지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유대감을 돈독하게 한다. 이는 축제 공간이 형성하는 축제 본질이 작동하여 사회구성원과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홍삼축제장에서 가끔 관광객분들이 진안에도 인삼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진안인삼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길래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46, 김○○, 40대 후반)

세 번째는 진안사람이라는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진안홍삼축제는 진안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지역민이 여러 과정에서 축제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축제 불참에 대한 불안감은 지역민을 더욱 참여하게 하는 소속감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민에게 축제는 진안이라는 지역적 범위 안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경험했을 때 진안사람이라는 동질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장을 방문한다고 볼 수 있다.<sup>47)</sup>

이렇듯 지역민은 지역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경험할 때

47) 유상춘, 2020, 앞의 논문, 108-111쪽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 축제는 지역민의 공동체의식을 강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소속감을 확인하겠지만 한정된 기간과 장소를 가진 축제에서 적극적으로 정체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 5. 맺음말

진안홍삼축제는 진안군의 정책적 전략인 홍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브랜드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지역대표축제로 선정하였다. 대표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안은 백제삼의 시배지라는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경제발전의 핵심 산업이라는 정치적 전략이 작동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인 군수의 공적 쌓기의 수단으로서 축제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지역민은 진안인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브랜드로 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축제를 통해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지역민은 진안홍삼축제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특화한 홍삼을 주제로 삼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역 대표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홍삼은 지역민에게 자연스럽게 스며있어 마치 오래된 축제처럼 인식되고 있다.

진안은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으로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과 지역민의 인맥을 동원하여 방문객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축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축제는 일상을 벗어난 보고 즐기는 일탈과 해방의 영역으로 빠져드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도시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진안의 명소인 마이산을 둘러보고 축제장을 방문하여 홍삼을 구매하는 형태로 축제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오후에 돌아간다. 따라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외지인과 지역민으로 구분되고, 프로그램에 따라 낮과 저녁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역민은 평상시에 경험하기 어려운 대중가수를 보기 위해 축제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즉, 도시축제에 비해 특정 품목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진안홍삼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축제가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둘째는 축제가 형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주체가 경험하는 정치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셋째는 각 주체가 홍삼축제에 참

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민이 축제에 대한 인식과 삶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다. 축제의 경제적 영향은 홍삼이라는 지역특산물을 매개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상품화를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 진안군은 홍삼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홍삼의 상품화를 위한 인증제도, 연구소 설립, 클러스터사업단의 유통까지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행정의 정책적 노력은 소규모로 재배하고 운영하는 농가 입장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축제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화를 위한 각 주체의 인식이 높아야 하지만 진안홍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품화까지 연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치적 영향은 축제를 운영하는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배경과 위원의 선정 과정에서 행정과의 연결, 축제를 둘러싼 주체 간의 관계, 군수의 정치적 전략에서 나타난다. 축제의 정치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군수가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다. 군수는 공적을 쌓기 위해 축제를 만들고, 각 지역의 향우회 대표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축제 기간에 군수의 영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전달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의 자율성은 재정독립을 통해 가능하지만, 행정으로부터 재정을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개입하는 축제정치가 가능하다.<sup>48)</sup> 따라서 군수의 정치적 목적이 축제를 통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진안홍삼축제의 각 주체별 참여 과정과 이유, 진안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 지역민의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축제는 단기간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매개체이다. 일상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지와 지인은 축제장을 화합의 장으로 이용한다. 지역민의 축제참여는 한정된 소비인구와 공간적 범위 안에서 소비의 장소가 일시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남의 장으로서 축제장은 주민 간의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 의도하지 않은 만남으로 오히려 자유로움을 방해받기도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민에게 축제는 대접하기, 친분 쌓기,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매개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여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인 진안군의 홍삼축제를 대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축제는 복합적인 기능이 집약적으로 발현되는 장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축제가 미치는 영향도 다방면에 연계된 시

48) 류정아, 2006, 앞의 책, 16-17쪽

각에서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은 진안군이라는 농촌지역에서 단기간에 대표축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주체들의 관계망을 통해 지역사회의 내부적 연결고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논문접수일: 2020. 11. 10. / 심사개시일: 2020. 11. 12. / 게재확정일: 2020. 11. 25.

## 참고문헌

- 구자인, 유정규, 곽동원, 최태영, 2011, 『마을만들기\_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세종: 국토연구원.
- 남성진, 2011, 「산촌지역 축제개발과 지역 활성화의 명분」, 『민속연구』 23집, 169-199쪽.
- 류정아, 2006,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 2007,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건수, 2007,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령시 머드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경철, 2006, 「지역축제의 농촌지역활성화 사례 연구: 효석문화제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6권 1호, 209-237쪽.
- 박민규, 2013, 「경상남도 거창군의 지역문화축제에 관한 연구: 대중음악 콘텐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손기호, 2006,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신현정, 2011, 「마을축제가 지역 커뮤니티 이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진안군 마을축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심규원, 조덕호, 2009, 「농촌지역축제의 만족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권 4호, 249-364쪽.
- 심우석, 2011, 「농촌지역 축제 특화와 새로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오운서, 2015, 「지역축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부천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유상춘, 2020, 「농촌지역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진안홍삼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유지연, 2018, 「국내 축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 해외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62권.
- 이경화, 2016,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축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나주 이슬촌 크리스마스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 이덕순, 2015, 『2015년 전라북도 시·군대표축제 평가보고서』, 전라북도·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덕순, 2016, 『2016년 전라북도 시·군대표축제 평가보고서』, 전라북도·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덕순, 2018, 『2018년 전라북도 시·군대표축제 평가보고서』, 전라북도·사문화관광산업연구원.
- 이은정, 2011, 『축제의 전승과 지역정체성: 옛 자인현 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이정덕, 2003, 『지역축제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연구』 5권 2호, 9-27쪽.
- 이정덕, 이종근, 이종진, 2000, 『전북의 축제』, 전주: 신아출판사.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2017년 전라북도 시·군대표축제 평가보고서』, 전라북도·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진안군, 2018a, 『내부회의자료』.
- 진안군, 2018b, 『실무추진단 결과보고회 자료』.
- 진안군, 2019a, 『내부회의자료』.
- 진안군, 2019b, 『진안군 식품제조업소 현황』.
- 진안군, 진안문화원, 2016, 『진안군 향토문화 백과사전』, 진안: 정문당.
- 대한민국 관광자원 정보 플랫폼, <http://www.consumerinsight.co.kr/travel/recommend/research.aspx>
- 디지털 진안문화대전, <http://jinan.grandculture.net>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오늘뉴스, 2018.10.22., [http://www.onulnews.com/sub\\_read.html?uid\\_45094](http://www.onulnews.com/sub_read.html?uid_45094)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s.go.kr>
- 전북일보, 2017.1.1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670>
-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사업단, <http://www.jroc.or.kr>
- 진안군, <http://www.jinan.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Abstract>

## **The Effects of Rural Festivals on the Region**

- The Case Study of Jinan Red Ginseng Festival -

Yoo, Sang-Choon\*

Rural festivals have changed their concept after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ural festivals were run by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community. Nowadays, festivals are held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Jinan-gun started the Jinan Red Ginseng Festival in 2013 with administrative support. The festival aim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unite local residents.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impacts from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based on objective data and interviews with various subjects on whether these festivals have achieved their original purpose.

Economic impacts can be identified through statistical data during the festival and interviews with merchants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Statistics show that economic effects more than doubled every year. In 2018, the number of visitors decreased compared to 2017, but economic effects rose. However, ginseng farmers and merchants who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feel that their income has decreased. In addition, the downtown area, which is far from the festival place, is considered to have a large economic loss because it cannot participate in the festival. The reason why the influence of the festivals appear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ject is that the success of the festival is judged only by the economic effect. This is due to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achieving outcomes. As a result, the economic impact of the festival was that Jinan-gun tried to commercialize red ginseng to increase the economic effect, but small-scale farmers and merchants were limited in connecting to commercialization.

Political influence is manifested by the selection of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which runs the festival, in the administration, and by leading the festival. In addition,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also arise as the county governor uses the festival as a political strategy. In rural areas, the influence of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governor is heavily affected in festivals. The reason is that festival expenses are mostly covered by local government budgets. Therefore, the political purpose of the county governor is expressed through festivals.

The sociocultural influence can be grasped through the process and reason of participation of each subject participating in the Jinan Red Ginseng Festival, the identity and pride of Jinan-gun and the role of the local residents' play space. Rural festivals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new experiences in a short time. Therefore, the reason why locals participate in the festival is to treat guests, build friendships and strengthen social ties.

The festival is a place in which complex functions are expressed intensively. The significance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influences of the festivals examined i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l community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to scrutin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jects who made representative festivals in rural area in a short period of time.

Key Words : Jinan Red Ginseng Festival, Rural Festivals, Local participation, Regional identity, Social ties

